

# 만남

2020년 1월  
통권 180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                |    |
|---------------------------|----------------|----|
| 신부님 칼럼                    | + 도화지 한 장----- | 3  |
| 소공동체 모임 자료                | 누구를 찾느냐?-----  | 4  |
| 교리                        | 사회교리의 이해-----  | 7  |
| 기도하는 삶                    | -----          | 10 |
| 영적 상담                     | -----          | 11 |
| 나눔                        | -----          | 13 |
| 공동체 소식                    | -----          | 16 |
| 지방 공동체 소식                 | -----          | 20 |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          | 21 |
|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          | 22 |
|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br>월보 만남지 안내 | -----          | 23 |
| 미사안내                      | -----          | 24 |

## 《교황님의 1월 기도지향》

### ❖ 복음화 지향: 세계 평화 증진

그리스도인들과 타종교인들은 물론 선의의 모든 사람이 세계 평화와 정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도화지 한 장

2020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도화지 한 장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무엇을 그리고 어떤 글자를 새길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온통 찬란한 금빛 색조로 바탕색을 칠한 뒤, 우뚝 솟아오른 탑 하나를 그려 넣을 수도 있고, 함부르크의 날씨처럼 회색빛 바탕에 굳게 닫혀 있는 문을 그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을 수도 있고 실패라는 글자를 새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든 지 하느님께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실 것입니다. ‘그래, 너의 한 해는 이랬구나.’라며 잔잔하지만 연민이 가득 담긴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각자가 그려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아직 물감을 준비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먹을 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깐요.

다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시간의 흐름이란 요상해서 어느 순간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스케치를 잘 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윤곽을 머릿속에 그려 놓아야만 비로소 도화지에 그림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글자도 그렇습니다. 화두가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 글자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이제 서서히 시선을 도화지 안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글자라면 운을 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12월 31일에는 하느님 앞에 수줍게 도화지를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삶에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 때는 온통 낙서가 가득했음지도 모릅니다. 방황의 때는 온통 어두움이 지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마다 받게 되는 도화지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제로베이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도화지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귀퉁이에서 시작을 하든, 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든 모든 것은 스스로가 그려가는 미래입니다. 도화지에 희망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밝고 경쾌한 터치부터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는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누구를 찾느냐?(요한 1,29-34)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53장 “오소서, 주 예수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29 (그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1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증언하고 있  
습니까?

## 한결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물건도, 새로운 영상도,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안에서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일  
기도 하고, 때론 버거움에 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  
도 궁금함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겠지만, 한편으로 걱정과 두려움도 가지  
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기대  
하며 그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두려움 섞인 행위에 예수  
님은 ‘무엇을 찾느냐?’라며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대단한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레나에게 물으신 물음이 제자들이 찾아야 할 궁극적인 물음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지금 신앙의 삶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를 찾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봅시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80장 “주님의 작은 그릇”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37. 사회교리의 방향, 사랑

만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통한 개인 구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믿음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가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인간다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원칙과 가치들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그리스도의 제자 됨을 식별하게 하는 구체적인 상징이 되며, 탁월한 사랑으로 인해 그 빛을 밝혀줍니다. 인간의 완성과 인간 세계의 개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새 계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개인의 행동은 사랑으로부터 기인할 때 온전히 인간적인 행동이 되며,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의 지시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행동은 개인적인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확신을 갖고 사랑을 증언해야 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사랑이 어떻게 사회를 선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또한 인간 사회를 완전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힘인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580항 참조).

이러한 사랑은 모든 사회관계 안에 현존하면서 그 관계 안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교만과 이기심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약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사랑은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를 넘어서 보편적인 인류애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인간답고 더욱 인간에게 알맞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생활 안에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사회생활과 활동에 있어서 최고의 규범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581-582항 참조).

사회 복음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가 바로 ‘사랑’입니다. 진정한 인간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발전과 성장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인간성의 발전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회는 오히려 물질만을 숭상하는 비인간화된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만이 인간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사회적 계명을 나타내며, 타인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사랑은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또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 38. 사회교리와 명절

사회교리에서 자본주의와 사유재산, 경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 효율을 촉진시키고, 그 높아진 효율로 인간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편을 이기기 위한 경쟁, 내가 모두 갖기 위한, 나만을 위한 사유재산,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가지수와 성장률이라는 숫자를 위해 봉사하는 자본주의는 교회가 옳다고 가르치는 것들이 아닙니다.

명절은 공동선을 위해 서로 애써온 이들이 자신의 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돕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평소보다는 더 행복할 수 있었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 명절은 어떠합니까? 음식준비, 부모님 모시는 문제에서 이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을 드러내고, 성묘 가서 절하는 문제로 종교 갈등을, 정치 이야기하며 정치 갈등, 사회 갈등, 남북 갈등의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명절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인간 존엄성, 공동선의 우선성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절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위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핵가족화, 노령화와 같은 수많은 문제 안에 있는 우리 가정과 그 구성원들의 아픔, 이산가족 문제로 힘 싸움을 하는 남과 북, 그 사이에서 눈물 흘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들, 주당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중인 노동자, 고용주, 정부. 명절을 맞이하여 자신들이 겪는 대립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경쟁하고 자신의 주장을 펴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회교리는 하느님께서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인간 구원을 이루기 위해 변화하는 각자의 삶에서 말씀을 육화시키려는 치열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번 명절은 잠만 자고, 텔레비전과 컴퓨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대화가 사라진 명절, 고속도로에서의 고생만 기억하게 되는 그런 명절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신앙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이 이 사회의 소외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향하길, 그래서 명절이 끝난 후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넉넉해지고 서로 기쁨을 나누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39. 이상적인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신자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그들 가운데 아무도 가난한 이들이 없었다(사도 2,44-45)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공동체가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이러한 이상은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델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의 이상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교회의 이러한 이상은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사실 초대 교회처럼 모든 생활을 다 내어놓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면 수도자들 말고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시에, 초대 교회의 이상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를 조직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과 사회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예로서 건강보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들자면,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고 필요에 따라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기에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사회 전체에서 사회적 연대가 아주 작은 영역에서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모든 병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니 사실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1891년 레오 13세 교황의 사회회칙 <새로운 사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여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국가보조와 사회보장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들이 유럽의 복지정책의 윤리적 기초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회교리는 그리스도교의 이상과 구체적인 정치경제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11월 22일 저녁 2시간 동안의 깨달음(이순자 마리아)

그날도 늘 하던 목요일 평일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요즘은 오후 4시만 지나면 길거리도 캄캄하고 또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불편했다. Berlinton를 지나 B5로 진입하려고 모퉁이를 도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내 쪽을 향해 여러 번 깜빡이를 켜다. ‘왜 그러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Eifer Straße를 지나는데 차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길옆에 주차를 하고 살펴보니 앞쪽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길 쪽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평소에는 남편이 거의 운전을 하는 편이고 평일미사 갈 때나 가끔 운전을 하는 편인 나는 주유 한 번, 청소 한 번 한 적도 없었다. 정말 당황스러웠다.

우선 남편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리고 ADAC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ADAC가 오길 기다리며 자동차 안에서 깨달았던 점을 오늘 기록해 본다. 첫째, 그동안 나를 위해 이용된 자동차에 고맙다는 것, 둘째, 복잡한 길이 아닌 도로에서 펑크가 난 일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사실이었다. 참고로 조금만 더 달리면 B5 도로가 정비로 인해 일차선만 운행되고 있었고, 길옆에는 뽕죽뽕죽한 기구들로(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다른 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길에서 펑크가 났다면 정말 아찔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할 남편이 있고, 또 마침 스마트폰이 곁에 있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드렸다. 늘 몸에 지니고 있는 묵주가 있어서 기도도 할 수 있으니 ADAC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의 지루함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드렸다. 또한 그날의 사고를 통해 깨달았던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일은 남편과 자식들에게만 마냥 의지하지 않고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큰돈을 들이지 않고 타이어만 교체하고 하루 뒤에 다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가 없으니 운동도 그리고 다른 곳의 약속도 지키지 못해 집에서 쉬는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탈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다가오는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동안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탈한 하루의 일상에서도 늘 깨어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집에서 가족이 있고, 자동차까지 있음에 감사하면서 더 감사할 일을 찾으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오늘입니다. 아직 철들지 않은 부족한 딸이지만 작은 사건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문

5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분노조절이 안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공감합니다. 살아가다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사정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터는 자동반사적으로 조금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욱’하고 치미는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적 치료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 답변 - 황미구 원장(상담심리전문가·헬로 스마일 심리상담센터장)

한국에서 ‘You die, me die!’는 오래 전부터 ‘너 죽고, 나 죽자.’에 대한 영어식 표현으로 농담 삼아 쓰던 말입니다. 물론 올바른 영어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누군가가 악을 쓰며 하는 “너 죽고, 나 죽자.”식의 문제 해결 방법은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너 죽고, 나 죽자’식의 폭력이나 강력 범죄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이나 방화, ‘묻지 마 폭행’과 같은 사회적 사건들 때문에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통칭 분노조절장애라고 불리는 ‘간헐성폭발장애’는 공격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 심각한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헐성폭발장애는 흔히들 말하는 ‘다혈질’이나 ‘욱하는 성격’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나타냅니다.

보통 정상적인 분노는 심리적 · 사회적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공격성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간헐적폭발장애의 경우 아주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심각하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헐성폭발장애 환자는 분노를 표현하기 전에 어떠한 징후를 보이지 않지만, 다혈질은 그 사람이 곤화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간헐성폭발장애를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여러 대인 관계에서 파괴적 행동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간헐성폭발장애 정도까지 의심이 되면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

합니다. 다만 분노와 관련해 초기 증상 정도라면, 이제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분노는 감정이라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다보니 기물 파손, 폭행, 보복 운전, 방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한국은 “참을 인(忍)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감정을 억제하거나 억압을 강조하는 문화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잘 참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는 것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결국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참는 사람들도 간헐성폭발장애 고위험군이 됩니다.

‘스타워즈’라는 영화에서 제다이의 스승 요다가 “두려움은 어둠으로 가는 길이다. 두려움은 분노를 만들고, 분노는 미움을 만들고, 미움은 고통을 만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두려움은 분노감 이전에 오는 마음의 상처라 볼 수 있습니다.

분노가 표출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지금 분노가 올라온다면 마음의 신호등이 내 마음 안에 불편한 무엇인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쳐 살아난 이발사를 생각해봅시다. 산이나 바다를 찾아가서, 여러분의 분노를 실컷 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내 감정을 드러내도 비난하지 않고 들어줄 누군가를 찾아서 실컷 하소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분노 조절이 안 된다면 그때는 상담 전문가를 만나 보시기를 권합니다.



##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전원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예수님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루카복음의 전반을 대변한다고 할 정도로 함의가 풍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무신론을 표방하는 철학자 니체마저도 이 비유를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이 비유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랑, 분노, 질투, 욕망, 이기심, 반목, 자유 등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한 심리 상태를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삶 속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사랑 안에 녹아드는 감동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이 주인공인데 이 이야기는 작은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여 먼 고장으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큰 불효에 해당되는데 그것도 모자라 받은 전 재산을 방탕한 생활로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일반적으로 맏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 재산이 3분의 2라고 보면(신명 21,17 참조) 작은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탕진한 셈이 됩니다. 더구나 그는 곤궁한 나머지 유다인에게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 치는 일까지 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치욕적인 신세로 추락합니다. 그는 재산만 탕진한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서의 기본 품위마저 완전히 잃게 됩니다.

한편으로 작은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길목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살피며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달려 나가 그를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가엾은 마음’은 희랍어에서 ‘에스플락츠니스테’(ἐσπλαγχνίσθη: esplagchnisthe) 즉 ‘연민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작은아들로부터 어떤 참회의 말도 다 들을 필요 없이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여기에서 좋은 옷과 반지는 아버지 아들로서의 권리와 신분을 상징하고, 신발은 맨발로 사는 노예나 고용인이 아닌 자유로운 신분임을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마침내 그 품위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아버지 아들임을 선언합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이제 비유의 시선은 큰아들로 옮겨집니다. 큰아들은 방탕한 동생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아버지에게 분노를 드러냅니다. 큰아들의 생각으로는 ‘불효자에 대한 규정(신명 21,18-21)’에 따라 작은아들을 원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우리 아들은 …방탕아이고 술꾼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큰아들에게 있어서 몹쓸 불효자이고 가산을 탕진한 동생은 그의 표현처럼 더 이상 ‘나의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저 아들’(30절)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완고한 큰아들을 타이르며 동생이 돌아와도 맏아들로서 그의 권리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음을 다시 말해줍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비유 속의 두 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은아들이 ‘이기적’이라면 큰아들은 ‘독선적’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작은아들과 큰아들의 이런 모습에 견주어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아들처럼 쾌락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며 방탕하게 살지 않았다고 강변해도, 일신의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하고, 온갖 탐욕과 과시욕에 빠져 산다면,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감각의 즐거움만 좇아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산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작은아들을 닮아 있습니다. 반대로 설령 모든 생활에 성실하고 책임성 강한 사람이라 해도, 내면에 질투와 분노, 불평과 원망이 지배하고 독선과 자만, 인색함이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큰아들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유는 일생 동안 작은아들과 큰아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이 비유의 참된 주인공은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의 그림, ‘탕자의 귀환(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은 예수님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 속에 담긴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의 깊은 의미를 하나의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이 그림의 작가 렘브란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이 젊은 시절 성공한 화가였고, 명문가의 딸과 결혼하여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 넷 중 셋을 잃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유일한 희망이던 스물일곱 살의 남은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만년에는 빛에 쫓돌리는 가난한 삶을 살다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탕자

의 귀환’은 바로 렘브란트가 63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헨리 나웬(Henri J.M. Nouwen) 신부는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에 매료되어 똑같은 제목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집필하였다지요. 나웬 신부는 렘브란트의 이 그림 속에서 화가의 굴곡진 생애의 특징들을 발견하며 그의 그림을 설명합니다. 한때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고 숭배를 받던 예술가였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윤락가에 서 있는 젊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을 그렸던 렘브란트가, 만년에 이르러 모든 것을 잃게 되면서 그동안 애쓰며 살아왔던 모든 영광이 헛되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자각하고, 누더기가 된 몸으로 아버지 품에 안긴 자화상이 바로 ‘탕자의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속에서 ‘사랑의 아버지’는 고단한 삶을 마감하고 돌아온 탕자를 자비와 용서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보듬어주십니다.

‘탕자의 귀환’은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여행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지상에서의 삶이 다하면 먼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온갖 욕망과 이기심, 질투, 분노, 경쟁심, 지배욕 등 지치도록 헛된 영광을 좇아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인생이 다해야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탕자일지도 모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영혼이 되는 것, 그 공허와 절망,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것을 잃고 누더기가 된 탕자라도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낮부끄러운 청을 드리며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더욱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 자체로 멀리서부터 먼저 달려와 껴안고 입을 맞추어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완고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주시며 당신 자녀로서의 품위를 되돌려주십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삶과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 성월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도, 죽음 후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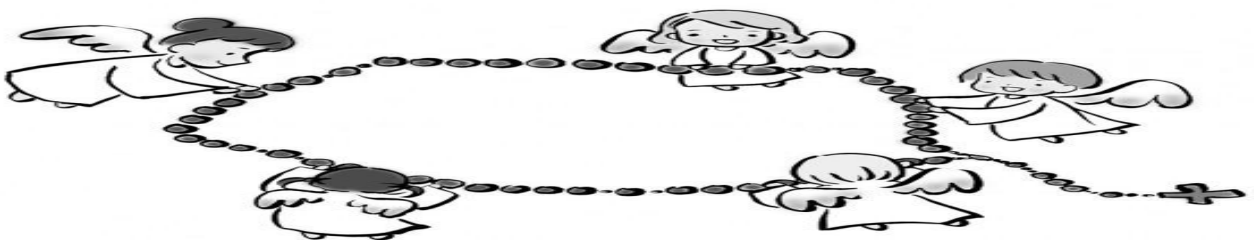


❖ 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4일  | 엘리사벳 앤<br>시튼 | 김 산   | 27일 | 안젤라(메디치) | 최 희 주<br>배 소 라 |
| 21일 | 아네스          | 유 곡 지 | 27일 | 안젤로      | 이 기 현          |
|     |              | 김 잔 디 | 28일 | 카롤리네     | 김 계 희          |
|     |              | 정 진 아 |     | 토마스 아퀴나스 | 백 정 선          |
|     |              | 김 혜 원 |     | 31일      | 강 석 길          |
|     |              | 정 인 실 |     |          |                |
|     |              | 정 선 미 |     |          |                |
|     |              | 전 우 연 |     |          |                |

❖ 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1일  | 마리아   | 이복심(B)<br>신유민(H)       | 19일 | 마리오      | 김형철(O)                               |
| 5일  | 시메온   | 김석주(H)                 |     |          |                                      |
| 8일  |       | Giersberg<br>Sigrid(O) | 21일 | 아네스      | 강나래(H)<br>정순자(H)<br>김혜경(O)<br>이인영(B) |
| 17일 | 안토니오  | 문철주(H)                 |     |          |                                      |
| 18일 | 크리스티나 | 김미영(O)                 | 27일 | 안젤라      | 김영희(H)                               |
|     |       |                        | 28일 | 토마스 아퀴나스 | 고광완(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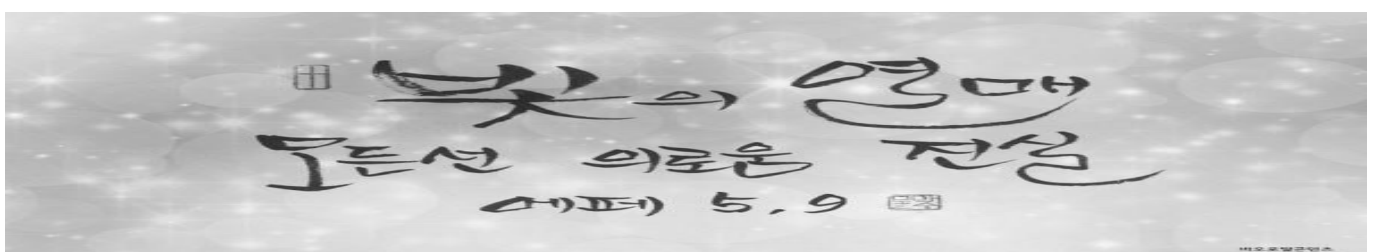


❖ 1월 성가번호 ❖

| 1월  | 입 당     | 봉 헌 | 성 체 | 파 견 |
|-----|---------|-----|-----|-----|
| 1일  | 239     | 342 | 153 | 70  |
| 5일  | 100     | 212 | 154 | 487 |
| 12일 | 481     | 213 | 156 | 1   |
| 19일 | 25      | 510 | 160 | 4   |
| 26일 | 찬 양 미 사 |     |     |     |

❖ 1월 미사 전례 봉사자 ❖

| 1월  | 독 서                    | 제 병 봉 헌                 | 복 사                     | 커피 봉사      |
|-----|------------------------|-------------------------|-------------------------|------------|
| 5일  | 이경구(안스카)<br>유곡지(아네스)   | 김치수(도미니코)<br>이영희(클라우디아) |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br>최장용(레오) | 3구역        |
| 12일 | 김진호(프란치스코)<br>최영숙(데레사) | 허길조(안드레아)<br>허명자(가밀라)   | 주일학교                    | 4구역        |
| 19일 | 청년회                    | 청년회                     | 청년회                     | 청년회        |
| 26일 | 정명옥(살로메)<br>김매자(베로니카)  | 이영원(베드로)<br>김정옥(크리스티나)  | 주일학교                    | 요셉<br>마리아회 |



## ❖ 우리들의 정성 ❖

| 주 일  | 11월 24일                                          | 12월 1일 | 12월 8일 | 12월 15일 |
|------|--------------------------------------------------|--------|--------|---------|
| 주일헌금 | 213.84                                           | 194.51 | 260.47 | 176.42  |
| 헌납금  | 60                                               | 30     | 310    | 110     |
| 구작입금 |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860.00 * 헌납금 총 합계 1,370.00 |        |        |         |

## ❖ 자진헌납금 ❖

**2018년 11월 24일 - 2018년 12월 16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 헌금납부 :

박춘실, 노정자, 정마리아 Schuster, 최현봉, 최순남, 최장용,  
 홍종각, 김계희 Tunas, 황영선, 최아나벨, 우동천, 서세원,  
 김민옥, 진윤희, 신옥희, 김효정, 현영애, 이정수, 윤석순,  
 강신행, 이종하, 배성우, 김기연, 오옥수 Ranitzsch, 이현묵,  
 심동근, 손수희, 문수진 Sebastian, 이정은, 김경미, 김건,  
 이수웅, 이공종, 강순행, 방은일, 정순문, 김경열, 한말조,

## ◆ 구작입금 :

박종래, 이철우, 허채열, 이경구, 최화영, 이영원, 육종인,  
 강일남, 홍경영, 김춘옥 Zerbock, 이중지 Rother, 김진호,  
 김부남, 김원자, 김치수, 김대현, 김형웅, 김동수, 김유석,  
 이석우, 송문규, 정정숙, 김정숙 Eilinghoff, 최성자, 이정훈,  
 이성원, 이명원, 이상봉, 이영희 Eggerstedt, 백정선, 박준병,  
 남궁춘배, 허두옥, 허길조, 권지연 Rabe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 Hamburg 공동체 소식

1. 2020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1월 1일 수요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면서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미사는 15시에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하며, 미사 후에는 신정을 맞이하여 떡국을 함께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
3. 1월 5일 일요일 주일미사 후에 사목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1월 7일 화요일은 함부르크 대교구 설정 25주년 기념미사가 주교좌성당에서 있습니다. 만남성당에서의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4. 1월 7일 화요일에는 믿음의 샘 뿌리아 월례회가 있고, 1월 8일 수요일에는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모임이 있으며, 1월 10일 금요일에는 2구역 소공동체, 1월 12일 일요일에는 청년 소공동체, 1월 23일 목요일에는 연례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5. 1월 25일 토요일은 설 명절 당일입니다. 10시에 만남성당에서 설 명절 미사를 봉헌합니다.
6. 1월 26일 일요일에는 설 합동위령미사를 15시에 예수성심성당에서 봉헌합니다. 합동위령미사 예물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사 후에는 각 가정에서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하여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미사는 찬양미사로 봉헌합니다.
7. 2월 2일 일요일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 이 날, 일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15시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초 축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8. 2월 8일 토요일에는 Ansgarwoche의 행사 중 하나로 Kulturabend가 kleine Michel 성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12월 미사는 12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대림2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3. 2020년 1월 미사는 1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4. 지난 12월 미사 후에 성탄 파티로 외식을 하였습니다. 모든 교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12월 공동체 미사는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봉헌했습니다.
4. 1월 공동체 미사는 1월 11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2월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는 12월 14일 토요일에 대림 제3주일 자선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미사 후에는 신부님과 함께, 식사와 즐거운 성탄 파티를 하였습니다.
2. 최랑(로사) 자매님의 딸 엘라의 한 살 생일을 맞이하여 케이크를 나누며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3. 20209년 1월 공동체 미사는 1월 11일(토) 오후 5시에 Pernickelmühle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                |                   |                      |       |           |            |
|----------------|-------------------|----------------------|-------|-----------|------------|
| 사 록 협 의 회      |                   |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 만남성당  | 회장        | 한말조(마리안나)  |
|                |                   |                      |       | 전례부장      | 문경영(아가다)   |
|                |                   |                      |       |           |            |
|                |                   |                      |       |           |            |
| 주 일 학 교        |                   | 매월 셋째 일요일            | 만남성당  | 교감        | 최영자(파울라)   |
| 연 령 회          |                   | 매월 넷째 목요일<br>17시 30분 | 만남성당  | 회장        | 최영숙(데레사)   |
| 예 비 자 교 리      |                   |                      | 만남성당  | 복음화       | 회장 대리      |
| 레 지 오<br>마 리 애 | 믿음의 샘 C.L.        | 매월 첫째 화요일<br>저녁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허명자(가밀라)   |
|                | 자비의 모후 P.         | 매주 화요일<br>17시 30분    | 만남성당  | 단장        | 강순행(마르가리타) |
|                | 평화의 모후 P.         | 매주 수요일<br>오전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현영애(헬레나)   |
|                | 사랑의 모후 P.<br>(정년) | 매주 목요일<br>저녁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박성아(베로니카)  |
| 구 역            |                   | 1구역                  | 구역장   | 김매자(베로니카) |            |
|                |                   |                      | 총 무   | 신옥희(비아)   |            |
|                |                   | 2구역                  | 구역장   | 이영희(체칠리아) |            |
|                |                   |                      | 총 무   | 허영란(엘리사벳) |            |
|                |                   | 3구역                  | 구역장   | 김형웅(야고보)  |            |
|                |                   |                      | 총 무   | 이경구(안스카)  |            |
|                |                   | 4구역                  | 구역장   | 육종인(베로니카) |            |
|                |                   |                      | 총 무   |           |            |
| 청년회            |                   |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 회장    |           |            |
|                |                   |                      | 총무    |           |            |
| 요셉, 마리아회       |                   | 매월 둘째 수요일<br>오전미사 후  | 회 장   | 심은희(안나)   |            |
| 여성 봉사회         |                   |                      | 실무 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1월 중 행사 예정표

| 일  | 요일 | 전례일                      | 단체 행사                        | 비고                     |
|----|----|--------------------------|------------------------------|------------------------|
| 1  | 수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 떡국 나눔                        | 15시 만남 강당              |
| 2  | 목  |                          |                              |                        |
| 3  | 금  | 주님 공현 대축일 전 금요일          |                              |                        |
| 4  | 토  | 주님 공현 대축일 전 토요일          |                              | 브레멘 공동체                |
| 5  | 일  | 주님 공현 대축일                |                              |                        |
| 6  | 월  | 주님 공현 대축일 후 월요일, 소한      |                              |                        |
| 7  | 화  | 주님 공현 대축일 후 화요일          | 믿음의 샘 뿌리아                    | 함부르크 대교구<br>25주년 기념 미사 |
| 8  | 수  | 주님 공현 대축일 후 수요일          |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                        |
| 9  | 목  | 주님 공현 대축일 후 목요일          |                              |                        |
| 10 | 금  | 주님 공현 대축일 후 금요일          | 2구역 소공동체                     |                        |
| 11 | 토  | 주님 공현 대축일 후 토요일          |                              | 오스나브뤼크                 |
| 12 | 일  | 주님 세례 축일                 | 청년 소공동체                      |                        |
| 13 | 월  | 연중 주간 시작                 |                              |                        |
| 14 | 화  |                          |                              |                        |
| 15 | 수  |                          |                              |                        |
| 16 | 목  |                          |                              |                        |
| 17 | 금  |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                              |                        |
| 18 | 토  | 일치 주간                    |                              | 하노버 공동체                |
| 19 | 일  | 연중 제2주일                  |                              |                        |
| 20 | 월  | 대한                       |                              |                        |
| 21 | 화  |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        |                              |                        |
| 22 | 수  |                          |                              |                        |
| 23 | 목  |                          | 연령회 월례회                      |                        |
| 24 | 금  |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                              |                        |
| 25 | 토  | 설                        | 10시 설 명절 미사                  |                        |
| 26 | 일  | 연중 제3주일(해외 원조 주일)        | 설 합동 위령미사,<br>찬양미사(예수 성심 성당) | 설 잔치                   |
| 27 | 월  |                          |                              |                        |
| 28 | 화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     |                              |                        |
| 29 | 수  |                          |                              |                        |
| 30 | 목  |                          |                              |                        |
| 31 | 금  |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                              |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 미 사 안 내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 지방 공동체

####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